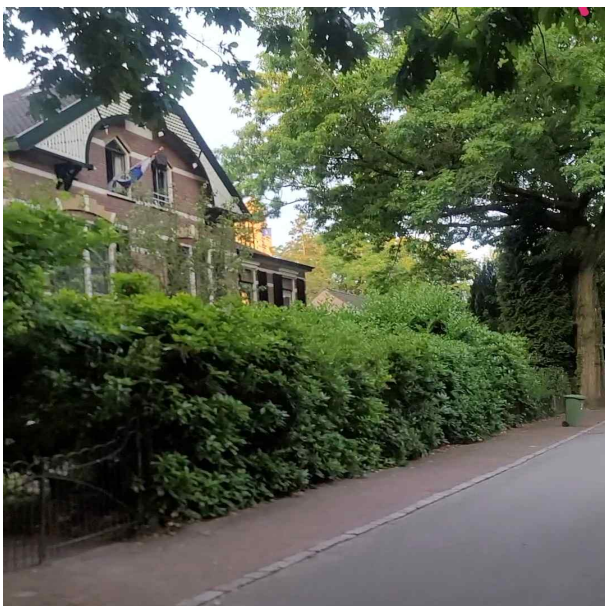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보통의 여행처럼 다가왔던 첫째 날.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과 무슨 일이 우리를 반겨주고 맞이할지, 여전히 어디론가 떠난다는 마음은 사람을 설레게 한다.

코로나로 마스크도 벗지 못하는 상황과 나라를 넘어갈 때마다 이어지는 검역들은 없어졌다.



(네덜란드 집, 그리고 어린이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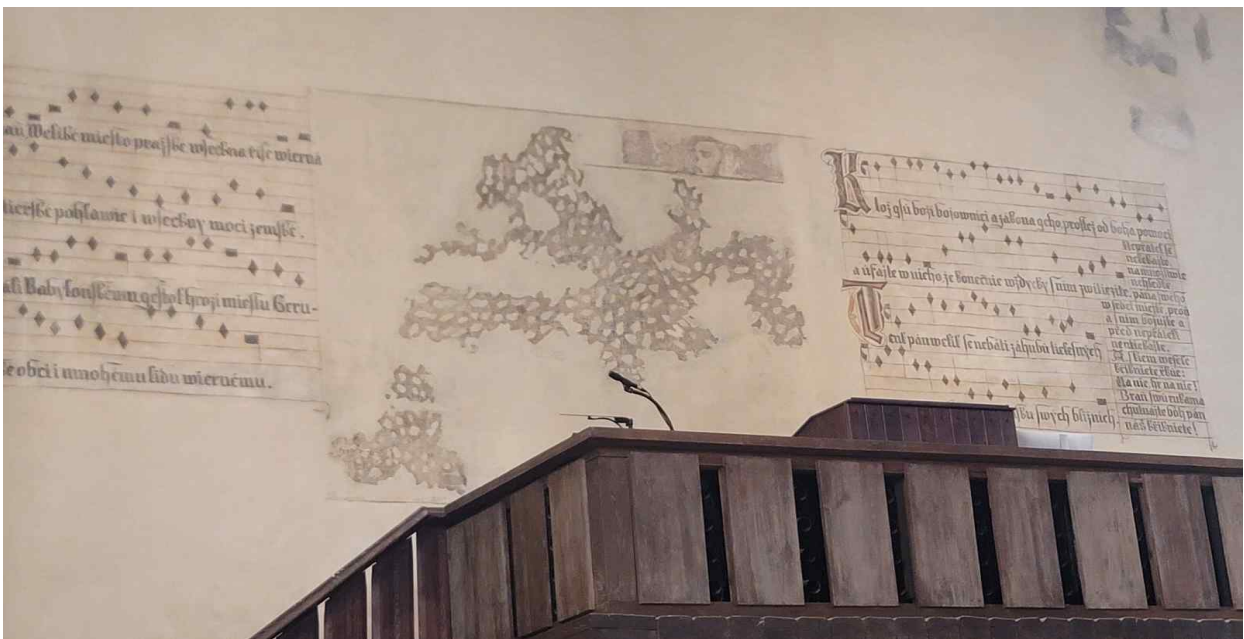
네덜란드의 집들은 층고가 높고 지붕에서 보이게끔 깃발들이 꽂혀 있었다.
 마치 2차 세계 대전에 나오는 영화처럼 보여지는 집들이 많다.
 유럽의 집들은 10층 이상 되는 아파트나 빌딩 같은 집을 못 본 것 같다.

중세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화려한 교회의 모습에 우선 반하고 웅장하게 올려 퍼지는 파이프오르간이 연주되고 있는 웅장한 소리에 나의 마음이 경건해진다. 중세 교회와 르네상스의 건축형태를 이어 가면서 옛 형태의 모습을 도시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에 놀랐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관광지과 쇼핑몰 같은 모습으로 바뀌고 마음이 안타까웠다.

잘 정돈되어있는 도시의 모습에서 도시를 이루려면 시청, 시장, 교회 광장이 같이 있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각 도시를 지날 때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도시를 확인할 수 있었다. 교회 시청 시장 그리고 광장을 이루고 있다.

중세시대를 느껴볼 수 있는 건축과 그 거리를 걷는다는 건 다른 느낌이다. 아무래도 신학을 공부하고 평화라는 슬로건으로 내가 지금 그 거리를 걷고 있기 때문이다. 역사 속에 느껴지는 건물들과 종교가 가지고 있는 사상들을 교회건축과 도시 건물에서 느낄 수 있었다.

종교가 기독교 하나였을까? 흑사병에 의한 죽음 끝없는 질병과 전쟁과 죽음 중세유럽 죽음의 공포, 유럽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총과 행위를 위한 구원 “연옥”을 탈출하는 기간을 사람들이 만들어 가고 권력과 돈으로 종교 행위를 만들고 그것을 종교의 부패로 얀후스는 받아드렸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화형을 당하게 되었다. 얀후스가 목회하던 교회는 화려했던 다른 교회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 소박하다. 궁극한 건 벽에 그려져 있던 음표와 그림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얀후스가 목회하던 베들레헴 교회)

안후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교회에서 화형을 당하는 종교개혁자를 만나게 되었다. 베드레헴 교회에서 부르던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찬양이 그토록 슬프게 내 마음을 울리게 했던가? 함께 부르던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었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다른 교회와 다르게 직사각형에 평지인 교회의 모습. 참 검소하다.

독일에서 만난 루터교회

안후스의 영향을 받은 루터, 루터가 지내던 루터 하우스

사상은 이어진다. (안후스의 사상에 루터가 영향을 받았다.)



(유대인 박물관)

유대인 박물관에서 사람 모형을 하고 있는 조형물들을 나도 밟고 있다.

나도 누군가에게 폭력을 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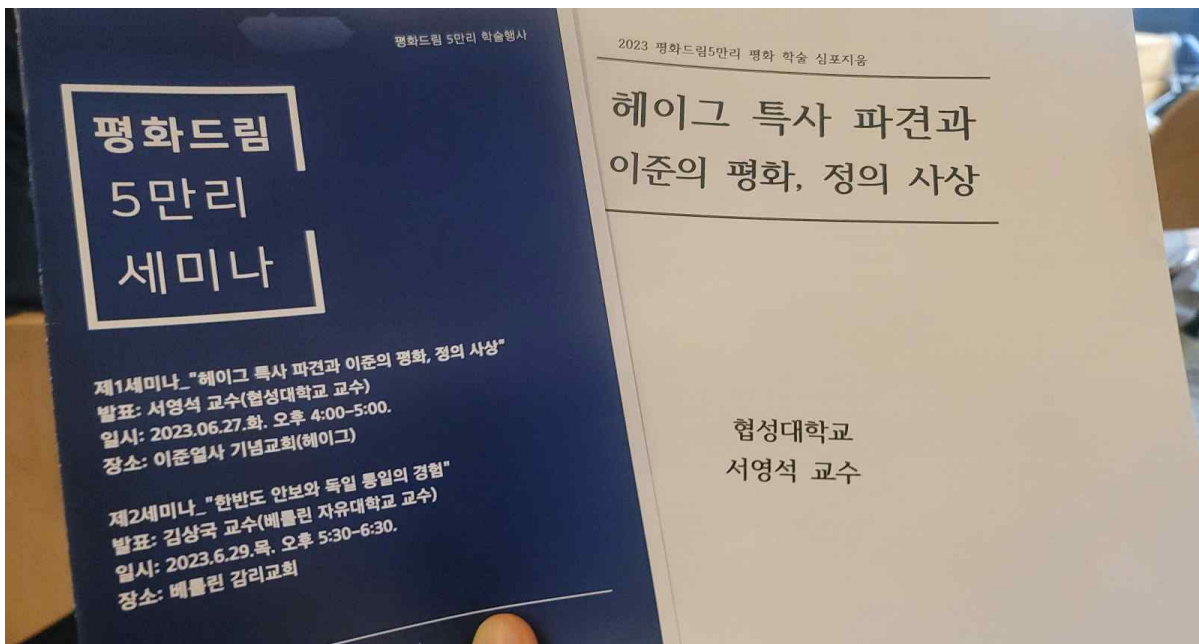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수용소 인간의 잔혹함을 알게 된 곳이다. 수용소를 들어올 때 유대인들은 금방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들어왔을 거다. “인생은 아름다워” “피아니스트” 의 영화가 생각이 났다. 수용소에서 탈출이 가능할까? 아이들의 신발 사람들의 안경 가방 머리카락까지 그대로다. 사형대 앞에서 수많은 사람을 사형 시킨 장군이 자신도 그 사형대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영화 같은 이야기가 이곳에서 있었다. 나는 그 길을 따라 지나온 흔적들을 지켜보는 사람이 되었다.

노동이 그대를 자유케 하리라(독일어: Arbeit macht frei) 라는 문구가 입구에 쓰여있다. 무엇이 진실로 자유를 느끼게 하는 것일까? 마음이 먹먹한 마음으로 돌아왔다.

1980년 독일 통일의 불씨가 되었던 니콜라이교회 서민교회라 불리는 니콜라이교회
1989년 비폭력 평화혁명을 이루며 7만명의 군중이 운집했다는데 평화의 시위에 앞장
섰던 교회 지금도 그곳에서는 평화의 메시지가 이어진다고 한다.

평화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간 UN 그리고 오스트리아 빈.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1위 빈에서 마지막 밤을 지내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 여전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간의 공습으로 사이렌이 울린다는 국경지역의 메시지
가 사회통신망을 타고 소식이 전해진다. 아직 우리나라도 휴전상태 종전 상태임을 언
제나 전쟁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유럽의 교회처럼 우리나라의 교회도 유럽처럼 상
점 카페 술집 그리고 관광지로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닌 우
리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슬프고 안타깝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여기서 점을 이룬다..... 고민하고 있던 곳에서 멈추게 되니 한참 머물게 된다.



(이준열사 기념교회에서 열린 평화드림 5만리 세미나)

잠시 앞으로 이준 열사 박물관과 세미나에서 느꼈던 “나라 사랑” 민족교육과 기독교적인 사상으로 이준 열사는 독립투사로서의 일을 할 수 있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신념에 강한 힘을 주었고 전덕기 목사님으로부터 교육받은 기독교 사상과 민족사랑 정신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다. 라는 교수님의 발제로 기독교 사상이 주는 큰 힘을 배우게 되는 시간이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들이 잊혀지지 않게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 역사가 알려 주고 있다.

“역사가 없으면 나라도 없다”

독일 드레스덴과 폴란드에서 전쟁의 아픔을 현재에서도 같이 느끼며 공존하고 있었다. 폭격의 아픔을 불타오르는 화염 속에 건물이 보여 주고 있다.

아마도 우리나라 였다면 화염속 건물들을 부수고 다시 재건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

시커멓게 있는 건물들을 닦고 닦아서 지금의 건물들이 유지, 닦아도 닦아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역사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며 함께 공존한다. 어쩌면 다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길 원하는 정신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종교개혁의 사상으로 전쟁의 아픔은 과거에 상처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지만, 2023년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으로 평화롭게만 느껴지는 현재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사람들 국경을 넘어올 때 각국 나라마다 상황이 다르던 일들이 기억한다. 폴란드는 국경 지역에 유모차가 줄지어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반겨주었다고 한다. 어디나 전쟁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정신과 사상으로 평화를 위해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 여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쟁이 멈추고 평화가 오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번 여정에서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명운동과 찬양과 함께 평화로 전쟁이 멈추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한 여정 값지고 보람된 여정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믿음과 다른 학문적인 위치에서 지켜보는 또 다른 학문의 위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학문을 넘어 현재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점과 조금 더 넘어 평화라는 주제로 기독교적 학문, 그리고 역사적인 사실과 함께 다가가 더욱 넓은 시각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프라하 얀후스 광장에서)

기독교 사상이 후대의 믿음의 세대로 잘 이어지게 만들고 사회적인 약자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와 함께 하는 기독교를 그려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음 세대로 잘 이어지길 기도하고 소망하고 교회가 어느 때 보다 사회를 위해 힘있게 목소리를 내야 하며 잘못된 부분을 반성하고 가치관이 다시 회복되어 사회로 향하는 목소리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다양한 교육이 다음 세대에게 영향을 주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